

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액티브 ETF (441640)

Kodex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.

2023년04월30일 기준
준법감시인 승인필 202304-2ETFH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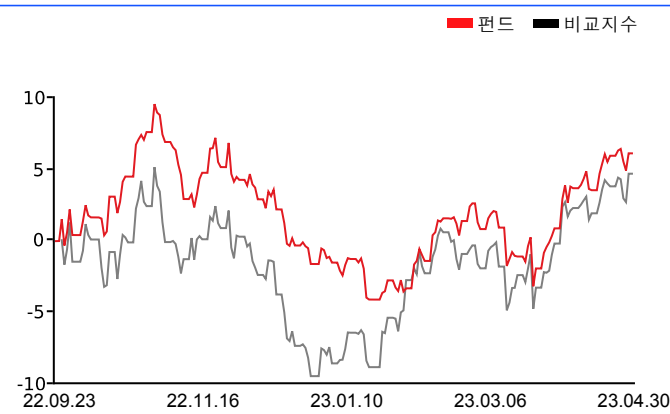
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&P500 Index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며,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. 안정적인 배당재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배당을 늘려 온 배당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면서, 추가적인 옵션 프리미엄 전략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.

누적수익률 (%)
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설정후	연초이후
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액티브	5.20	9.98	-3.14		6.07	7.87
비교지수	4.89	11.77	-0.44		4.65	15.64
비교지수 대비	0.31	-1.79	-2.70		1.42	-7.77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수익률 그래프 (%)

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수익률을 기준입니다.

※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상위 10종목 (%)

AMPLIFY CWP ENHANCED DIVIDEND	16.75
MICROSOFT	5.47
MCDONALD'S CORP	5.09
PROCTER & GAMBLE CO/THE	5.00
VISA INC-CLASS A SHARES	4.90
UNITEDHEALTH GROUP INC	4.81
CHEVRON CORP	4.77
JOHNSON & JOHNSON	4.74
JPMORGAN CHASE & CO	4.53
GOLDMAN SACHS GP Equity	4.53

※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투자 위험 등급 : 2(높은 위험)					
1	2	3	4	5	6
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※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,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편안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지수소개

S&P500 Index는 미국에 상장된 전체 주식 중 시가총액 상위 50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.

※ 정기변경: 연 4회 (3월, 6월, 9월, 12월)

기본정보

펀드명	삼성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S&P액티브증권 ETF[주식-파생형]
기초지수	S&P 500 Index PR
펀드순자산총액	347.97억원
1주당 NAV	10,234.43원
총 보수	연 0.43%(지정판매 0.01%, 집합투자 0.4%) (신탁 0.01%, 사무수탁 0.01%)
최초 설정일	2022.09.23
상장일	2022.09.27
분배	매월 지급
운용회사	삼성자산운용
사무수탁회사	신한펀드파트너스
수탁은행	한국씨티은행(삼성투신)
환매수수료	해당사항 없음
환매방법	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,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

※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거래정보

거래소	한국거래소
표시통화	원
거래단위	1주
설정단위	50,000주
거래소코드	441640
ISIN코드	KR7441640000
블룸버그 Ticker	441640KS <EQ>

투자분배금 지급현황

지급기준일	분배금액(원)
2023.04.28	53
2023.03.31	53
2023.02.28	52
2023.01.31	52
2022.12.29	52
2022.11.30	51

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,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